

'서울신문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이 절실했다. 특히 노후 장비의 교체는 자칫 정보 전달의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VMware의 가상화 기술은 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서울신문사 IT 개발부

도전과제

서버 시스템 교체 시 신문제작시스템의 무중단 실현 또는 서비스 무중단 상황에서의 가상화와 시스템 이중화 실현

108년의 언론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신문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신문으로서, 미디어 영역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신문제작시스템의 고도화는 서울신문이 지향하는 독립 정통 언론으로서의 목표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초적 접근은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와 서버 운영 시스템의 이중화였다. 그러나 고비용이 불가피한 물리적 서버의 교체보다는 VMware의 가상화 기술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선택하게 되었다.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VMware의 기술력과 경쟁사 대비 손쉬운 관리 환경은 가장 유효한 선택의 기준 사항이었다.

서울신문은 외주 매체 포함 매일 100만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즉각적이며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신문제작시스템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는 언론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우선 순위의 핵심 과제이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한 IT 환경의 우선적 선결 과제는 당장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신문제작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30여대 이상의 서버 시스템과 관련 스토리지 시스템을 수시간 이상 정지시켜 놓은 뒤 개선 작업을 진행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문사 자체의 핵심 속성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치명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물리적 환경을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손쉬운 통합 관리 환경의 실현

지난 수년간 신문제작시스템의 특별한 변화를 부르지 않았던 상황은 오히려 시스템의 노후화를 가속화 했으며, IT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성능 개선과 관리 부문의 향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기종 운영 체제의 서버 시스템과, 각각 도입 시기와 사양이 상이한 시스템의 속성은 손 쉽게 건드릴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신문의 정식 발행에 무리를 줄 수 없었으며 동시에 최신 정보에 목마른 독자의 눈과 귀를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 서버 시스템의 속성을 분류하여 객체화 시킨 뒤 이를 가장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허락 한 뒤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IT 서비스 이관 중 장애 또는 시스템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불확실한 수단 이었다.

그러나 VMware를 통해 경험하게 된 VMware ESXi 체험 버전의 제공은 서울 신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했으며 결국 P2V 마이그레이션을 구현 하여 산재했던 서버 통합을 실현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된 VMware 솔루션

VMware vSphere 5 Enterprise
 VMware vCenter Server 5 Standard for vSphere

구축환경

하드웨어: IBM x3650 M3 서버/IBM DS5020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Microsoft Windows 서버2003 32bit
 Microsoft Windows 서버2008 64bit
 RedHat Enterprise Linux 4

검증된 기술 우위의 가상화 구현

직관적인 vCenter의 관리 화면은 가상화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IT 관리자 에게도 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VMware가 지닌 업계 최고의 기술력은 서울신문의 IT 관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적절하게 구성된 지원 구조와 운영 기술 교육은 찬각을 다투는 언론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다.

특히, 기존의 서버 시스템 장애 대책은 대부분 별도의 이중화 솔루션을 통해 가능했으나, 이는 또한 고비용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반면, VMware의 물리적 정보 이관, 가상화 환경의 정보 이관 등의 구현 기술은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 도구 임을 입증 하였으며 결국 서울신문으로 하여금 기술 우위의 가상화 관리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손쉬운 스토리지 관리

이렇듯 VMware의 도입과 실제 구현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 지자 미처 준비 되지 못했던 서버의 장애 대책 수립 혹은 스토리지와 연계된 관리의 문제는 더 이상 서울신문 IT 관리 부서의 고민이 되지 못했다. 더불어 별개의 관리 대상이 되던 스토리지의 연계 관리는 vMotion을 통해 아주 손쉽게 구현이 되었으며, 시스템의 추가 혹은 신규 기술의 앞선 테스트를 시도 하기 위한 VM기반의 환경 역시 완벽하게 구성되었다.

관리 환경의 손쉬운 이식, 많은 시간을 소모 하지 않는 간결함 그리고 검증된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은 VMware의 가상화 환경이 서울신문과 같은 언론사 에도 적합함이 입증된 것이다.

결과

- 18대의 서버를 3대로 통합하여 최대 83%의 서버 구입비 절감
- 물리적 다운타임을 최소화 한 서버 시스템 통합
- vCenter/vSphere 로 검증된 손쉬운 신문제작시스템 관리
- 신규 시스템 도입시 가상화 환경을 우선 적용한 비용 효율적 확장

